

지역 소식통

고창군,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

고창군이 심원면 만돌과 하전 갯벌체험장에 너울성 파도와 갯길 위험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과 관광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다목적 경보시설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국·도비 1억2000만원을 포함 총 1억7000만원을 들여 구축한 이 시설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와 전라북도 경보통제소 그리고 고창군이 연계해 해안가에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보전달 및 수집체계의 신속성 확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다.

아울러 기존 민방위 경보시설과도 연동해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에 민방위 경보방송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진서면 입암·진서 마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

부안군 진서면 입암·진서 마을 소각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되어 지난 4일 각 마을회관에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올해는 부안군 284개 마을 중 소각산불이 없었던 마을로 4개의 마을이 선정됐으며 그중 2개 마을이 진서 면이 선정됐다.

한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은 영농철을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과 농업부산물 및 각종 쓰레기 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치며 산불의 주원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산불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 주관하에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경찰서, 아광반사지 부착 교통안전문화 홍보 나서

부안경찰서는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을 찾아가 아광반사지를 부착하고, 무단횡단 및 교통사고 사례를 설명하는 등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5일 부안서는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전동차와 농기계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려고 관내 마을회관 등을 방문 아광반사지를 부착해 주었다.

부안서는 특히 어르신의 주요 교통수단인 전동차, 사발이, 이륜차 운행자를 중심으로 빛 반사 비닐막이 입혀 드리기와 농기계, 전동차 후면에 반 사지 부착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방위적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관광지 조성사업 '순항'

2019년 3월부터 본격 운영... 전국 최초 가요박물관 등 들어서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공식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9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후에도 계획대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해 2019년 3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읍사 관광지 조성은 내장산 국립공원과 내장산리조트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정동 정해마을을 중심으로 한 21만5808㎡(약6만5천평)에 총사업비 304억원이 투입된다. 현존하는 최고의 백제가요인 정읍사의 설화와 정해마을에 위치한 새암우물, 그리고 부부나무 등의 관련 자원을 관광 자원화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곳에는 가요 박물관과 한식 체험관, 저가거리, 정읍사 여인집 등 건축물과 야외정원, 자연생태연못, 조각 등이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궁중음악인 수제천의 우수성과 가치를 소개하고, 설화 속 주인공인 망부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석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백제시대 평민의 삶을 보여줄 예정이다.

시는 내년 8월까지 가요박물관 전시와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인구감소지역 민·관 협약 체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나서

고창군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해소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무서울청사에서 고창군을 비롯해 9개 지방자치단체(정읍시, 평창군, 예산군, 음성군, 강진군, 영양군, 하동군, 함천군)와 KT, LH, LG U+,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민·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장과 5개 민간기업(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해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을 맺은 9개 시군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하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자체 운영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자체에 일괄 지원한다.

고창군은 KT에서 추진하는 기가스토리 사업(5기가 네트워크 구축) 농협중앙회에 추진하는 농업인 행복클



고창군이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민·관 협약식'을 가졌다.

센터, 지역 문화복지센터,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개발컨설팅 사업(셰프 리장제도), LG U+와 고령대학 교과 추진하는 원격강의 시스템, LH공사에서 추진하는 마을 정비형 공공지원사업, 귀농귀촌 리츠 사업, 귀농귀촌 주택 임대사업 등 협력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민관 협력 사업을 발굴(공모 또는 시범) 신청하는 등 인구절벽 해소를 군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

이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고수해오름마을을 조성사업비로 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일지리와 생활중심마을조성과 가족친화공간을 마련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내실 있는 인구 늘리기에 나선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멜론 브랜드 육성 박차

개인별 1:1 현장컨설팅·지역적응 시험재배 추진

고창군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명품멜론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고창수박'에 이은 명품 '고창멜론' 브랜드 육성을 위해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개인별 1:1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패턴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멜론생산을 위한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고창멜론 농업인들의 재배기술 향상평준화와 작기조절 등을 통해 집중 출하를 피하고 12월까지 출하를 하는 등 생산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중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노력 끝에 고창멜론은 '2016년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해 '2017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2017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고창멜론'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 벌써부터 추석명절 선물을 선주머니 쇄도하고 있으며 군은 고창수박과 멜론의 발전방향을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학계 및 유통종사자, 농업인들과 함께 이날 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중순에는 수도권 롯데백화점에서 연중 생산되는 고품질 고창 멜론 홍보에도 나선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생기 정읍시장, 청와대 방문 국비 확보 '총력'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쩍 재검열을 보이고 있는 김생기 시장이 지난 4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2의 대덕밸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읍의 첨단과학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관련,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시장은 이날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만나 그간 정읍에서 추진해온 신정동 일원 첨단과학연구단지과 전북연구개발특구 관련 현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정읍은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생명공학연구소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부 등 3대 국책연구기관과 이와 연계해 조성한 첨단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제도적 이점 등을 잘 갖추고 있는 첨단과학산업도시"라고 강

조했다. 김시장은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제4산업혁명 등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국가 과학발전은 물론 정읍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며 신규사업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사업은 ▲한국방사선진흥원 설립(539억) ▲한국화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280억) ▲미생물융복합 전북과학기술원 설립(4180억) ▲첨단 방사선연구소 독립 법인화 추진(293억)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전본소 이전(100억)이다.

김시장은 또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을 만나 2단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